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19일 (음력 2월 13일) 화요일

## ‘지역구 축소·이동’ 광주·전남 빨라진 총선 시계

광주·전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제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집안 단속으로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18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야 4당이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를 축소하는 '지역구 22석·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안이 실행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광주는 8석에서 6석,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 15만3500명을 감안하면 광주는 동남읍과 서구읍이, 전남은 여수

### 선거구제 개편되면 광주·전남 4석 축소 전망

### 출마예정자 지역구 이동·당무 감사 예의주시

갑과 여수읍이 해당돼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지역구 축소가 지역의 정치력 약화로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못지않게 집안 단속에도 공을 들이며 내년 총선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의 제1당인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최근 4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을 재선임했다.

지역위원회장은 다음 진당대회까지 지역 내

당 조직과 당원을 관리할 수 있어 총선 공전장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달 28일부터 2주간 당무감사를 통해 지역위원회 점검에 나섰다.

이번 당무감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총선 전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공전 행방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 결과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 지역위원장 교체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입지자들의 지역구 선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읍에 출마했던 이남재 시의원선거는 서구읍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예정이다.

광주 관산갑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으나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보류했다. 목포 출마가 예상되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도 보류된 상태다.

지역구 이동과 복당 신청에 대해 기존에 동지를 틀고 있던 출마 예상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어 지역 정가도 다양한 쟁점에 대비하고 있다"며 "총선이 가까워 질수록 여러 변수에 의해 지역정가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알바천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제금으로 만든 단기 댁집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고 했다. 황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한미미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2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26만 3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실질적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했다.

그는 "제금으로 알바(아르바이트) 만들 능력 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 이라면서 '더 이상 단기 알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황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 광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 도입률 40%... '전국 최고'

159곳 중 64곳 신청...대형유치원은 100%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률이 40%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5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날 현재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한 유치원은 64곳으로, 40.3%의 도입률을 보였다.

원아수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24곳 모두 신청을 완료했다. 관련 교육도 모두 이수했다.

나머지 134개 유치원 중 40곳이 자율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에 동참했다.

시 교육청은 원활한 에듀파인 사용환경 구축을 위해 전산직 9명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표강사단과 에듀파인 멘토링단을 각각 구성해 찾아 가는 방문연수와 원격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지원(유치원당 2대)을 비롯해 유아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회급당 20만원) 지원, 노후 환경 개선비(유치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도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황교안



홍남기



이혜찬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 광주시-5개 자치구 '노사 상생도시 광주 실현' 공동협약

###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 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월14일

전국 최초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현대차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의 연장선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협력 ▲노사갈등 발생시 평

화적 해결 노력 ▲노동자 자존감 회복 · 기업육성 시책 지원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5개 구정이 앞장서겠다는 결의이다"며 "이를 시작으로 산업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기업 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 제20회 구례 산유물축제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

개막공연행사

· 일시 / 장소 : 2019. 3. 16.(토) 17:30 ~ 19:20 / 주행사장 상설무대  
· 내용 : 제20주년 기념 기획테마공연, 인기 가수 '노라조' 공연 등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

- 공식행사 : 풍년기원제, 개막행사
- 공연행사 : 국가무형문화재 농악한마당, 청춘DJ클라보 음악여행 등
- 체험행사 : 산수유 꽃길따라 봄마중, 산수유떡만들기 체험경연, 영원불변의 하트지 남기기, 코스프레 의상체험 등
- 전시/판매행사 : 농특산물판매장터, 향토음식점, 이야기가 있는 산수유꽃길 등
- 부대행사 : 구례찍고 산수유먹고, 산수유캐릭터 퍼포먼스 등

2019. 3. 16. 토 ~ 3. 24. 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

주최 구례군 GURYE County    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